

## C. M. I 에 의한 갱년기 여성의 신체 및 정신건강 평가

崔 明 聖

메리놀간호전문학교

目 次

- |                   |         |
|-------------------|---------|
| I. 서 론            | IV. 고 찰 |
| II. 조사대상 및 방법     | V. 결 론  |
| 1. 조사대상           | 참고문헌    |
| 2. 조사방법           | 영문초록    |
| III. 조사성적         |         |
| 1. 호소반응수의 전반적비교   |         |
| 2. 호소반응수의 양집단별 비교 |         |

### I. 서 론

Cornell Medical Index는 코넬大學이 Brodman(1949)<sup>1,2</sup> 이 Cornell Selectee<sup>3</sup>를 Cornell Service Index<sup>4</sup> Cornell Index<sup>5</sup>로 개량 발전시키면서 만들어진 질문지법에 의한 검사법으로 신체적 호소 154개 항목 정신적 호소 41개 항목 도합 195개 항목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전에는 흔히 군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異狀 및 性格異狀에 관한 검사로 이용하여 그 정확한 평점평가를 널리 인정받았으나 근래에는 그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軍集團에서는 물론 학교, 事業場, 남·여집단, 특정의 연령층 및 일반병원에서의 외래환자에 대하여 그들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건강에 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많이 사용되어 그 이용가치를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호장<sup>6</sup>이 대학생들에 대해 C·M·I를 적용하였고, 한상엽<sup>7</sup>의 군집단에 대한 적용, 남호창<sup>8</sup>의 가정부인을 대상으로 한 적용, 강홍순<sup>9</sup>의 여대생에 대한 정신건강 평가, 최수호<sup>10</sup>의 갱년기 여성의 정신건강 평가, 이춘원<sup>11</sup>의 한국 수녀들의 정신 및 신체적 건강 평가 등이 있다.

남녀를 막론하고 인생에 있어서 갱년기 또는 퇴행기는 생리적인 고비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변

화와 함께 여러가지 병적인 증상들을 가져오게 되며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훨씬 취약성을 드러내게 된다.

이런점에서 갱년기 여성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환경 또는 어떤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인은 건강 교육의 중책을 띠고 일선에서 간호대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이들의 건강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얻어 우리나라 국민보건 향상에 적게나마 기여하고자 본조사에 임하였는 바 생활환경 생활습관 배경 등이 각각 다른 修道者, 과부, 부부생활을 하는 여성 세 그룹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비교 검토해 보았다.

### II. 조사 대상 및 방법

#### I. 조사 대상

본연구는 197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부산, 경북, 경남 지역에 살고 있는 갱년기 여성 수도자, 과부,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無作為 抽出, 각각 50명씩 모두 150명을 실험집단으로 삼았으며 조사 대상 150명 전원(수도자 50명, 과

부 50명, 부부생활을 하는 부인 50명) 이에 응답했다.

이들의 연령층은 45세에서 55세까지였고 교육 정도는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들을 임의로 선택

하였다.

이들 세 집단의 연령 및 교육 정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istribution of Sample According to age and education

Education	Age	Married Group	Widowed Group	Religious Group	Total
Middle School Graduates	45-49	17	13	10	40
	50-55	12	21	6	39
High School Graduates	45-49	12	9	8	29
	50-55	5	5	4	14
College Graduates	45-49	1	1	12	14
	50-55	3	1	10	14
Total		50	50	50	150

## 2. 조사 방법

여자용 C·M·I 질문지를 번역하여 미리 준비한 설문지를 부부생활군은 "A"로 표시하고 과부군은 "B"로 수도자군은 "C"로 표시한 후 해당자에게 개인 또는 단체로 배부하고 간단히 설명한 후에 기입하도록 기재식 검사 방법을 적용하였다.

각자의 평점은 각설문에 대한 긍정 속의 총화로 표시하였고 C·M·I를 시행할 때 개개인의 연령 및 교육 정도를 기록하였으며, 각자의 설문지는 번호를 붙여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C·M·I를 완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대체로 40분 정도였다.

질문지 내용의 각항은 신체적 호소 154문항 12개 항목과 정신적인 증상 호소 41문항 계 195문항 18항목으로 Table 2에서와 같이 구분되어 있다.

Table 2. Items of Connell Medical Index

No.	Somatic Complaints (12 Items)	No. of Q
A	Eyes and Ears	9
B	Respiratory system	18
C	Cardiovascular system	13
D	Digestive system	23
E	Musculoskeletal system	8
F	Skin	7
G	Nervous system	18
H	Genitourinary system	11
I	Fatigability	7
J	Frequency of illness	9
K	Miscellaneous disease	15
L	Habits, Mood and feeling patterns	6

	Psychic Complaints (6 Items)	
M	Inadequacy	12
N	Depression	6
O	Anxiety	9
P	Sensitivity	6
Q	Anger	9
R	Tension	9

## III. 조사 성적

일정한 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를 적절한 절차를 밟아 통계적 처리를 거쳐 분석 검토한 결과 세 집단 간의 전반적인 비교와 각집단 간의 항목별 비교에 의한 평점 호소율 및 유의성차를 얻을 수 있었다.

세 집단의 전체 대상에 대한 통계학적 처리결과는 表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대상에 대한 항목별 평균 호소반응 수는 전체 항목에서 실험군이 37.10인 데 비하여 수녀군이 34.30으로 수녀군이 실험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과부군은 46.00으로 실험군에 비해 과부군은 현저하게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P < 0.05$ )

신체적 호소 항목인 A-L 영역에서도 실험군이 27.00인 데 비해 수녀군은 24.30으로 실험군보다 낮았고 과부군은 28.80으로 실험군보다 높은 성적을 보였다.

정신적 호소 항목인 M-R 영역에서도 실험군이 10.80인 데 비하여 수녀군은 10.20으로 역시 낮게 나타났고 과부군은 16.50으로 상당히 높은 퍼유이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0.005$ )

이성적에 의하면 세 집단 간의 정신 및 신체 항목에서 모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녀군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호소율을 보였고 다음이 실험군(부부생활하는 群)이었는데, 과부

군은 신체적 호소 항목에서 높은 성적을 보였고 특히 정신적 호소 항목에서는 현저히 높게 나타나며 유의한 차가 있었다. ( $P < 0.005$ )

Table 3. Comparison of Married, Widowed and Religious group according to responses to physical mental and total health items.

Items	Group	Mean	S. D	t	p
A - R	Married N = 50	37.10	3.86	2.10	$P < 0.05^*$
	Widowed N = 50	46.00	4.57		
	Religious N = 50	34.30	3.57		
A - L	Married N = 50	27.00	2.44	0.06	N. S
	Widowed N = 50	28.80	2.94		
	Religious N = 50	24.30	2.57		
M - R	Married N = 50	10.80	1.76	3.50	$P < 0.005^{****}$
	Widowed N = 50	16.50	1.98		
	Religious N = 50	10.20	1.53		

\* $P < 0.05$  \*\*\*\* $P < 0.005$

## 2. 호소반응 수의 양집단별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Married group with widowed group according to responses to individual health items.

Items	Married N = 50		Widowed N = 50		df = 98	
	Mean	S. O	Mean	S. D	t	p
A	2.82	1.86	2.38	1.94	1.14	N. S
B	2.04	2.11	2.04	1.85	0	N. S
C	3.24	2.28	3.82	2.98	1.09	N. S
D	4.78	2.98	5.04	2.60	0.46	N. S
E	1.52	1.36	1.28	1.22	0.92	N. S
F	0.88	0.99	1.08	1.28	0.91	N. S
G	3.36	2.32	2.94	2.20	0.91	N. S
H	1.82	1.65	2.60	2.00	2.17	$P < 0.05^*$
I	1.82	1.65	1.88	1.77	0.18	N. S
J	1.16	1.78	1.88	2.67	1.60	N. S
K	1.50	1.25	2.04	1.52	2.08	$P < 0.05^*$
L	1.40	1.15	1.56	0.96	0.73	N. S
M	3.40	2.89	5.52	2.99	3.59	$P < 0.001^{**}$
N	0.9	1.50	1.94	2.04	2.97	$P < 0.005^{****}$
O	2.12	1.82	2.40	1.74	0.78	N. S
P	1.14	1.25	2.02	1.71	2.98	$P < 0.005^{****}$
Q	1.46	2.03	2.28	2.21	1.95	$P < 0.05^*$
R	1.86	2.07	2.50	2.00	1.60	N. S

\* $P < 0.05$  \*\* $P < 0.001$  \*\*\*\* $P < 0.005$

表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양집단 간에 유의한 차를 나타내고 있는 항목들은 H·K·M·N·P 및 Q 항목으로서 신체적 호소 항목은 12항목 중 2 항목인

데 비하여 정신적 호소 항목은 6 항목 중 4 항목이 나타나었다.

이들의 성적을 비교해 보면 생식기계 통 호소인

H 항목에서는 부부생활군이 1.82인 데 비해 대조군인 과부군은 2.60 ( $P < 0.05$ )이며 기타 질병 호소인 K 항목에서는 부부생활군이 1.50인 데 비하여 대조군은 2.04 ( $P < 0.05$ ), 부적응 호소인 M 항목에서는 부부생활군이 3.40인데 비해 대조군인 과부군에서는 5.52 ( $P < 0.001$ ), 우울증 호소인 N 항목에서는 부부생활군이 0.9인 데 비해 대조군인 과부군은 1.94 ( $P < 0.005$ ), 감수성 호소인 P 항목에서는 부부생활군이 1.14인 데 비해 대조군인 과부군이 2.02 ( $P < 0.005$ ), 노여움 호소인 Q 항목에서는 부부생활군이 1.46인 데 비하여 대조군인 과부군은 2.28 ( $P <$

0.05)로 나타나 부부생활군에 비하여 대조군인 과부군에서 모두 꽤 높은 평점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 높은 차이를 보인 호소 항목은 감수성 호소인 P 항목 ( $P < 0.005$ )과 우울증 호소인 N 항목 ( $P < 0.005$ )이었다.

이 성적에 따르면 양집단 간의 차이는 부부생활군보다 대조군인 과부군이 높은 평점율을 보였고, 특히 정서적 호소 항목은 4 항목이나 높은 평점율을 나타냈으며 그중에서도 감수성 호소인 P 항목과 우울증 호소인 N 항목에서는 현저히 높은 평점율을 나타내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P < 0.05$ )

Table 5. Comparison of Married group with religious group according to responses to health items.

Items	Married N=50		Religious N=50		df =98	
	Mean	S. D	Mean	S. D	t	p
A	2.82	1.86	2.96	1.66	0.40	N. S
B	2.04	2.11	2.08	1.67	0.10	N. S
C	3.24	2.28	2.08	1.89	2.83	$P < 0.005$ ****
D	4.78	2.98	4.90	3.10	0.20	N. S
E	1.52	1.36	1.40	1.61	0.40	N. S
F	0.88	0.99	0.92	1.29	0.18	N. S
G	3.36	2.32	2.30	1.93	2.52	$P < 0.025$ ***
H	1.82	1.65	2.28	1.64	1.44	N. S
I	1.82	1.65	1.70	1.73	0.36	N. S
J	1.16	1.78	1.08	1.96	1.95	$P < 0.05$ *
K	1.50	1.25	1.42	1.25	0.33	N. S
L	1.40	1.15	1.30	0.81	0.50	N. S
M	3.40	2.89	3.64	3.23	0.39	N. S
N	0.9	1.50	0.54	1.02	1.50	N. S
O	2.12	1.82	1.38	1.89	2.00	$P < 0.05$ *
P	1.14	1.25	2.32	1.82	3.69	$P < 0.005$ ****
Q	1.46	2.03	1.48	1.68	0.05	N. S
R	1.86	2.07	0.88	1.13	2.97	$P < 0.005$ ****

\* $P < 0.05$

\*\*\* $P < 0.0025$

\*\*\*\* $P < 0.005$

表 5에서와 같이 부부생활군과 수녀군 양집단의 평균 호소 빈용 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 항목들은 G·C·J·O·P 및 R 등의 영역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분포 비율을 보면 심장 및 혈관계통의 호소인 C 항목에서 부부생활군이 3.24인 데 비해 대조군인 수녀군에서는 2.08로 대조군인 수녀군이 상당히 낮았고 ( $P < 0.005$ ) 신경계통의 호소 항목인 G 항목에서는 부부생활군이 3.36인 데 비해 대조군인 수녀군은 2.30으로 훨씬 낮았다 ( $P < 0.025$ )

찾은 질병 호소 항목인 J 항목에서는 부부생활군이 1.16인데 비하여 대조군은 1.08로 낮은 편이었고 ( $P < 0.05$ ), 불안 호소 항목인 O 에서는 부부생활군이 2.12인데 비하여 대조군인 수녀군은 1.38로 대조군이 낮았으며 ( $P < 0.05$ ), 감수성 호소 항목인 P 에서는 부부생활군이 1.14인 데 비하여 대조군인 수녀군에서는 2.32로 대조군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 $P < 0.005$ ). 긴장 호소 항목인 R 항목에서는 부부생활군이 1.86인데 비하여 대조군인 수녀군은 0.88로 꽤나 낮은

평점율을 보였다( $P < 0.005$ )

이 성적에 의하면 양집단 간을 비교해 볼 때 부부생활군이 대조군인 수도자군에 비해 높은 평점율을 보였고, 특히 심상 및 혈관계통 호소 C 항목과 긴장 호소 R 항목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P < 0.005$ ), 감수성 호소인 P 항목에서만은 부부생활군이 대조군인 수도자군에 비해 적 낮은 평점율인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P < 0.005$ ).

#### IV. 고 찰

Weider<sup>(4)</sup>가 1945년 Cornell Medical Index를 고안해낼 당시는 어느 집단의 정신, 신체적 이상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 집단의 취약성을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C·M·I는 195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① 신체적 증상에 관한 항목 ② 과거 病歷에 관한 항목 ③ 家族歷에 관한 항목 ④ 정신적인 문제에 관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Lawton<sup>(12)</sup>은 모든 자기완성 질문지법 중에서 C·M·I가 가장 총괄적으로 검사항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심리적 부담을 적게 주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특히 유용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남호창<sup>(8)</sup>이 가정부인에 대한 조사에, 최수호<sup>(10)</sup>가 갱년기 여성의 정신건강 평가에, 이춘원<sup>(11)</sup>이 한국 수녀들의 정신 및 신체적 건강 평가에 이를 적용하여 성적을 보고한 바 있으며 본인은 인생의 퇴행기 즉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변화와 더불어 여러가지 병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갱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의 특징적 양상을 파악하여 건강향상을 위한 기본적 자료로 제공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이를 시도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몇사람의 성적을 본인의 성적과 비교해 보면 전체 호소 항목 평점 평균은 본인의 조사 결과에서 부부생활군이 37.10, 과부군이 46.00, 수녀군이 34.30의 평균 호소 반응을 보임으로써 최수호<sup>(10)</sup>의 갱년기 여성에 대한 조사에서 정상군이 40.2, 남호창<sup>(8)</sup>의 가정주부 대상 성적 39.4, 이춘원<sup>(11)</sup>의 한국 수녀를 대조군 37.06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부부생활군과 수녀군에서는 저율 평균 평점을 보였고 과부군에서는 상당히 높은 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춘원<sup>(11)</sup>의 수녀군 조사 성적이 29.71로 나타났음에 비해 본인의 조사 결과에서는 수녀군이

34.30으로 역시 같은 수도생활을 하더라도 갱년기에는 역시 심신 양면에 건강상태가 저하되고 있음을 역력히 말해 주고 있다.

특히 정신적 호소 항목인 M-R 항목에서는 부부생활군이 10.80, 과부군이 16.50, 수녀군이 10.20으로 수녀군이 가장 낮았고 과부군이 현저히 높았는데 이는 강홍순<sup>(9)</sup>의 여대생 성적 29.1에 비하면 3개 그룹이 모두 낮았고 최수호<sup>(10)</sup>의 갱년기 여성 정상군 성적 12.8 남호창<sup>(8)</sup>의 가정주부(40代) 성적 14.1에 비하면 과부군을 빼고는 두군 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수녀군들이 다른 집단의 여성들에 비해 심신 양면에서, 그중에서도 특히 정신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이는 전전하고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 상태와 직결되는 지표이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조건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부부생활군과 과부군의 비교 결과를 항목별 평균 호소 반응 수의 유의성 차가 높은 것부터 살펴보면 N 항(우울)에서 부부생활군이 0.9, 과부군이 1.94, 이며 P 항(감수성)은 1.14, 2.02로 각각 적 유의한 차가 있었고( $P < 0.005$ ), M 항(부적응)은 3.40, 5.52로 유의성이 높았다( $P < 0.001$ ).

H 항(생식기 계통)은 1.82, 2.60이며 K 항(거터질병)이 1.50, 2.04 그리고 Q 항(노여움)이 1.46, 2.28 등으로 역시 유의성이 있다( $P < 0.05$ ).

兩群의 비교 결과 과부군이 신체적 호소 항목에서는 물론 특히 정신적 호소 항목에서 전체 항목이 상당히 높은 평균 평점율을 나타내고 그중에도 N 항(우울증)과 P 항(감수성)이 제일 높은 것은 퇴행성 우울증의 가능성이 많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는 혼자서 가장역할까지 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 믿고 의지할 배우자가 없다는 점 등의 여러가지 心身의 부담이 누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分析된다.

한편 수녀군과 부부생활군의 비교 결과를 항목별 평균 호소 반응 수의 유의성 차가 높은 것부터 살펴보면 C 항(심장 및 血管系)이 부부생활군 3.24 수녀군 2.08이며, R 항(긴장)이 1.86, 0.88로 수녀군이 상당히 낮은 율을 보이고 있다( $P < 0.05$ ).

그러나 P 항(감수성)은 1.14, 2.32로 수녀군이 높은 율을 보이고( $P < 0.005$ ) G 항(신경계)은 3.36 2.30으로 수녀군이 낮은 율을 나타냈으며( $P < 0.025$ ), J 항(잡은 질병)이 1.16, 1.08, O 항(불안)이 2.12 1.38로 역시 수녀군에서 훨씬 낮은 평균 평점 호소

율을 보이고 있다( $P < 0.05$ ).

이 성적 결과에 따르면 P 항(갑수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수녀군보다 부부생활군이 높은 평균평점 호소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전항목에 걸친 평균 평점 호소율을 살펴보면 과부군이 46.00으로 최고치를 부부생활군이 37.10으로 다음을, 수녀군이 34.30으로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어 생활환경 생활습과 배경 등이 미치는 영향이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배우자들 잃은 과부군에서 다른 두군들 보다 일등하게 정신적 및 신체적 호소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갱년기 우울증의 원인이 난소 기능 저지, 자율신경계통의 흥분, 내분비 기능의 변화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변화는 그 자체에서 보다 심리적인 안정이 더 큰 病因的 要素가 되고 있다는 주장과<sup>11)</sup>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 C·M·I는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의 취약성에 대한 건강 관리와 그 예방조치에 좋은 참고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집단 진단에 대한 Screening method로서 매우 유용할 뿐 아니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증을 얻었다.

## V. 결 론

本研究는 197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산·경북·경남 지역에 살고 있는 환경과 생활양상이 각각 다른 부부생활군과 과부군, 수녀군 등 세 집단의 45~55세의 갱년기 여성 각 50명씩 모두 150명을 無作為 抽出, Cornell Medical Index를 적용하여 신체 및 정신적 호소에 관해 조사한 것이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평균 평점 호소율은 과부군이 46.00, 부부생활군이 37.10, 수녀군이 34.30으로 과부군이 가장 높고 수녀군이 가장 낮았다.

2). 신체 및 정신적 호소율의 평균 평점율은 각각 과부군이 신체 28.80, 정신 16.50이며 부부생활군이 27.00, 10.80, 수녀군이 24.30, 10.20이었다.

3). 신체적 항목 중 최다 평균 평점 호소율은 과부군, 부부생활군, 수녀군 모두 소화기계통으로 각각 5.04, 4.78, 4.90이며 정신적 항목에서도 세 군 모두 부정응성에서 각각 5.52 3.40 3.64였다.

4). 부부생활군과 과부군 양집단 간의 항목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우울증, 갑수성 항목들이었고 부정응성, 노여움, 기타 질병 생식기계통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부부생활군과 수녀군 양집단의 항목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을 순서대로 보면 심장 및 혈관계통·갑수성·긴장호소·신경계통·자궁·질병·불안호소 등이었다.

## 참 고 문 헌

- 1) Brodmen, K. Erdmann, A. J. jr, Lorge, I. & Wolff, H. G. (1969 a). The Cornell Medical Index: An adjunct to medical interview j. Amer. Med. Ass. 140, 530-534.
- 2) Brodmen, K. Erdmann A. J. jr. & Wolff, H. G. 1949. b. Cornell Medical (Index-health) questionnaire, Manual. Cornell University Medical College.
- 3) Mittelman, B., Weider, A. Wechsler D., and Wolff, H. G. (1944). The Cornell Selector Index and Second Brief Psychotherapy Council Volume on War Psychiatry Sanuary.
- 4) Weider, A., Brodmen, K., Mittelman, B., Wechsler, D., & Wolff, H. G. (1945). Cornell Service Index. War Medicine 7, 209-213.
- 5) Weider, A., Wechsler, D., & Wolff, H. G. (1946). The Cornell Index and Cornell Word Form. Ann. N. Y. Acad. Sci. 46. 573-591.
- 6) 남호창(1965 I). 코오넬의학 지수에 관한 연구, 현대의학 2. 359-378.
- 7) 한상엽, 표인수, 권선영, 고병하, 권길우, 윤창범 (1969). 육군 장병에 대한 코오넬의학 지수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8, 51-58.
- 8) 남호창(1965 II). 코오넬의학 지수에 관한연구, 현대의학 3, 439-470.
- 9) 강홍순(1972). C. M. I. 에 의한 여대생의 정신 건강평가. 최선의학 15, 95-98.
- 10) 최수호(1972). C. M. I. 에 의한 갱년기 여성의 정신 건강평가. 가톨릭대학 의학부논문집 23, 387-393.
- 11) 이춘원(1975). 한국 수녀들의 코오넬 의학지수에 의한 정신 및 신체적 건강평가. 가톨릭대학 의학부논문집 28, 421-433.
- 12) Lawton, M. P. (1950). J. Consult. Psychol. 23, 352.
- 13) 한동세(1974), "정신과학" 서울: 일조각 pp, 162

## Evaluation of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Status of Women in the Involutional period using the Cornell Medical Index

Myung Sung Choi

Maryknoll School of Nursing, Pusan, Korea

This study was carried on between June first and July thirty-first 1976 using as subjects women living in the areas of Pusan, Kyoung Sang Buk Do and Kyoung Sang Nam Do.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according to different environments and styles of life, namely married life, widowhood and religious life and according to ages ranging between 45 and 55. Each of these 3 groups of women of menopausal age consisted of 50 persons and totaling a group of 150.

The subjects were chosen according to random sampling and the Cornell Medical Index was applied to discover physical and mental health status with the following results:

1. The total mean scores for complaints in the group of widows was 46.00, in the group of Married women was 37.10 and in the Sisters was 34.30 showing highest scores for the Widows and lowest for the Sisters.
2. The mean score percentages for physical and mental complaints 28.80 and 16.50 respectively for the Widows: 27.00 and 10.80 for the Married and 24.30 and 10.20 for the Sisters.
3. The highest number of mean scores for physical items was for digestive system complaints which showed a score of 5.04, 4.78 and 4.90 respectively for Widows, Married women and Sisters among the psychic status items all 3 groups showed highest scores for complaints of inadequacy: 5.52, 3.40 and 3.64 respectively.
4. In comparing the 2 groups of Married women and Widows, the highest significant differences appeared in the items of depression and sensitivity but there was also som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tems of inadequacy, anger, miscellaneous diseases and genito-urinary system complaints.
5. In comparing the Married women and Religious groups the highest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from the highest were as follows: cardiovascular system, sensitivity, tension, nervous system, frequent illnesses and anxiety.